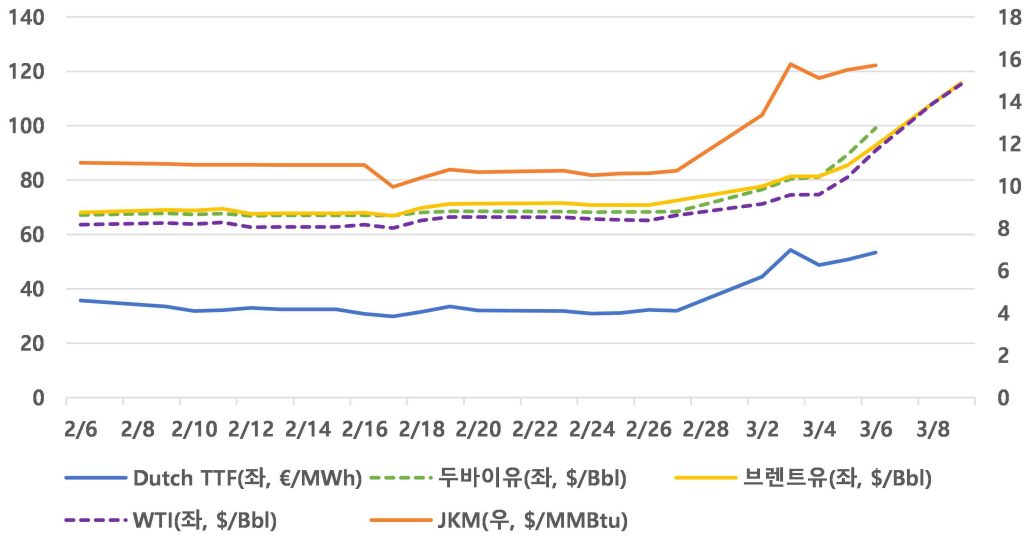
세계 경제 동향

○ 중동 리스크 확대에 글로벌 천연가스, 원유 가격 급등 ▌2026-3-2 로이터 통신; 2026-3-5 조선일보; 2026-3-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란이 카타르 라스라판(Ras Laffan) LNG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하면서 세계 LNG 공급 차질 우려가 확산됨. 해당 시설은 글로벌 LNG 공급의 약 20%를 담당하는 세계 최대 생산 단지로, 생산 중단 소식 이후 국제 가스시장이 급등세를 보임.
- 유럽 가스 거래 기준인 Dutch TTF 선물 가격은 2월 27일 MWh당 31.96유로에서 3월 6일 53.39유로로 약 67% 상승함. 동북아 LNG 현물 가격 지표인 JKM(Japan Korea Marker)도 같은 기간 46% 상승하여 MMBtu당 15.71달러를 기록함.
  - 정부는 현재 법정 의무 비축분(9일분)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 수급 차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임. 다만 비축 물량이 감소할 경우 현물 시장 의존도가 확대되면서 도입 단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임. 또한 국내 LNG 도입 물량 중 상당 부분이 유가연동 장기계약 구조인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이란이 걸프 지역 국가들을 공격하면서 사우디, 이라크 석유 시설들도 예방 차원에서 가동을 중단함.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이 사실상 멈추면서 국제 유가는 폭등했음. 3월 9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115.7달러로 2월 27일(72.5달러) 대비 59.6% 상승하였고, WTI는 배럴당 115.2달러로 2월 27일(67.0달러) 대비 71.8% 상승함.
  - 정부는 3월 5일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 및 단계별 비축유 방출 계획 수립 등 선제적 수급 안정 대응에 나서는 한편, 유가 상승기 편승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합동점검을 강화하기로 함.

❖ 중동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의 추가 상승 압력이 불가피해 보임. 또한, 유럽과 아시아 간 LNG 확보 경쟁이 재점화되면서 국내 수입물가·전력도매가격(SMP) 상승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비축 전략과 조달 포트폴리오의 점검이 필요함.

▌'26년 2~3월 천연가스 및 국제원유 가격 추이 ▌



국내 경제 동향

중동 군사 충돌 확산에 따른 물류 차질 및 수출기업 부담 확대 ▌2026-3-7 동아일보

- 중동 지역 군사 충돌 확산으로 호르무즈 해협 및 페르시아만 일대 해상 운송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물류망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주요 해운사인 MSC, Maersk 등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중동행 화물 예약을 중단하거나 분쟁 할증료를 부과하는 등 운임 인상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항로 이용 시 해상 운임이 기존 대비 약 50~80% 상승하고 운송 기간도 3~5일가량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이에 따라 자동차·가전 등 해상 운송 의존도가 높은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물류비 부담 확대 및 납기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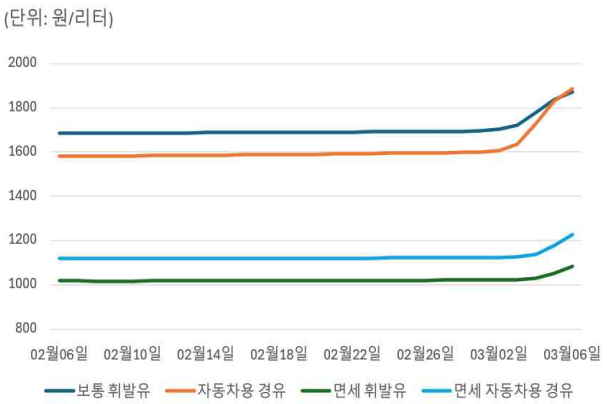
❖ 중동 지역 군사 충돌 장기화 시 국내 수출기업의 물류 비용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국내 유가 상승 ▌2026-3-7 동아일보

-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음.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900원을 상회하며 약 3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함.
- 정부는 최근 유가 상승에 대응하여 석유시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주유소의 과도한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약 6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 항만을 통해 긴급 도입하는 등 에너지 수급 안정 조치를 추진 중임.

❖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도 확대되는 모습임.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원유 수입단가 상승을 통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 및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26년 2월~3월 국내유가 추이 ▌



▌'26년 2월~3월 원/달러 환율 추이 ▌



세계 농업·농정 동향

일본 2024년 농작업 사망 사고 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 발표 ▌2026-2-26 농림수산성

- 농림수산성의 농작업 사망 사고 조사* 결과 2024년 농작업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51명 증가한 287명으로, 조사 이래 2번째로 많은 사망자를 기록함.
  - 2024년 6월~8월은 1898년 일본 통계 개시 이후 최고 온도를 기록하였고, 이로 인한 열사병이 2024년의 농작업 사망자 수 증가의 주요 원인

  * 해당 조사는 농림수산성이 후생노동성의 '인구통태조사'를 활용해 일본 전국의 농작업 관련 사망 사고 발생 실태 및 원인 파악을 위해 실시
- 농림수산성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 추세에서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 강화,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 등으로 구성된 '농업 분야 열사병 등 대책 종합 패키지'를 추진 예정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월 '농림분야 안전관리 TF'를 발족, 3월까지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예정

미·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요소 가격 급등 ▌2026-3-5 로이터 통신; 2026-3-4 한국경제

- 세계 요소 수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동 생산업체들이 판매를 중단한 데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상선 운항이 가로막히면서 국제 요소 공급 차질이 현실화됨.
  - '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 사흘 만인 3월 2일 미국 뉴올리언스 요소 가격이 t당 470달러에서 550달러로 17% 이상 급등함. 3월 2일 시카고상품거래소 요소 선물도 전일 대비 14.18%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56% 오름.
- 이란은 세계 3대 요소 수출국으로 2024년 수출량이 450만 톤에 달하며, 카타르(2위), 사우디아라비아(6위), 오만(7위) 등 여타 걸프 국가들도 주요 수출국에 포함됨. 중동 지역은 풍부한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저비용 요소 생산이 가능하여 글로벌 비료 공급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아 왔음.
  -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비료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옥수수·밀 등 주요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글로벌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요소수 사태 이후 수입선을 중동으로 다변화하면서 비료 원료의 약 40%가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고 있어 공급망 취약성이 노출됨. 현재 5개월분의 비축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 단기적 수급 대란은 없을 전망이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8월경부터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국내 농업·농정 동향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제 시행지침 개선 ▌2026-3-1 농림축산식품부

- '26년 3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 및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을 개선하였다고 발표함. 이번 개선의 주요 내용은 ①무농약·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 ②신규농가 직불금 신청요건 완화, ③온라인 신청 창구 신설임.
  - (지급횟수 보장) '16년 폐지된 저농약인증 지급 이력이 직불금 신청횟수 산정에 포함되어 일부 농가의 친환경농업직불 참여 기회가 제한되어 왔음. 이에 이를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여 무농약(최대 3회)·유기(최대 5회) 직불금 지급횟수를 보장함.
  - (신청요건 완화) 기존에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0월31일까지 인증이 유효해야 직불금 신청이 가능했음. 이로 인해 신규 친환경 농가의 당해연도 신청이 불가하였음. 하지만, 당해연도(3~6월 사이) 유효한 인증서 제출만으로도 신규 친환경 농가의 당해연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됨.
  - (온라인 신청 창구 신설) 농업e지를 통한 온라인(비대면) 신청 창구를 신규 개설하고, 신청 기간도 기존 3~4월(대면)에서 비대면 3~4월, 대면 5~6월로 확대함.

  * 친환경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기간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

❖ 이번 시행지침 개선으로 제도적 진입 부담이 완화되어 친환경 농가의 친환경농업직불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농림축산식품부 쌀·계란 수급 안정 대책 추진 ▌2026-2-27, 2026-3-5 농림축산식품부

- '26년 2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양곡을 15만 톤 이내(정곡 기준)에서 단계적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함. 이는 부족한 재고상황(평년대비 14만 톤 부족)과 산지유통업체가 희망하는 수요물량(16만 톤)을 고려하여 나온 결정임.
  - 1차 공급은 '25년산 10만 톤을 우선 공급하고, 2차 공급 시기·물량은 시장 모니터링 후 결정할 계획임.
  - 공급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한 대여방식으로 추진하되, 쌀값 불안 시 정부의 반납 요청에 동의하는 업체에 한해 공급을 진행할 계획임.
  - 정부양곡 공급대상은 지난해 정부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산지유통업체 약 209개소임.
  -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며, 양곡연도 말까지 쌀로 판매하여야 함.
- '26년 3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계란 수급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3~4월 중 신선란 약 471만 개를 수입한다고 밝힘.
  - 수입 일정은 3월 336만 개, 4월 135만 개이며, 수입된 신선란은 신학기 급식수요 및 부활절 성수기에 대비해 대형마트·중소유통업체 등에 공급될 예정임. 추가 수입은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검토할 계획임.

  * 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산란계 누적 살처분 수는 926만 마리(3.3일 기준)이며, 3월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양곡 대여방식은 쌀 수급 상황에 따라 공급 물량의 회수가 가능하여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음. 반면, 수입 신선란은 유통 이후 회수가 어렵다는 점에서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계란 수급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